

성도의 교제 |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 가는 교회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 1. 설만한 물가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2. 오늘은 Father's Day 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3. 2023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향해 매일 기도합니다.
 -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4. 후보 안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 6. 손금미 집사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 7. 다음 주일(6/25)에는 주일 친교로 함께 모입니다.
- 8. 고린도전서 3 장 16 절 (2023 년 6 월 성경 암송 구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9. 설만한 물가 교회 현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설만한 물가 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rwgchurch@outlook.com / rwgchurch.ca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2 장(통 26)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4. 시편 5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내 마음 항상 / 당신의 그 섬김이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21 장 (통 351)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12:38-40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높임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
The life of serving rather than being praised

*찬 송 Hymn	212 장 (통 347)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 말씀 노트 || 높임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

(막 12: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1.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 110 편 1 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써 천국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 편 1 절의 말씀을 재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2.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 시대에 왕궁의 역사를 기록했던 서기관(삼하 8:17)들은 학자들이면서 높은 관리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있었고(대하 34:13; 스 7:12), 유다가문에도 서기관이 있었습니다(대상 27:32). 서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일반 백성들의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행정 기관에서의 역할도 하면서 대중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종교 그룹을 형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스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 년을 지나면서 1 세기의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탁월한 율법에 관한 지식과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막 12: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막 12: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은 제사장과 같은 긴 옷을 입고 어깨에 걸치는 술을 하고 다녔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의복은 서기관들을 구분하는 의복이기 보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명성과 부를 상징하고 있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이러한 긴 의복을 입었을 때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오만과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 오만이란 무엇입니까?

오만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언어와 행동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 편 1 절에서 ‘오만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다’는 동사에서 ‘수다쟁이, 허풍쟁이’라는 명사가 형성화 되면서 ‘오만한 자, 조롱하는 자’의 의미를 만들어 냈습니다.

야고보서 4 장 16 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오만한 가운데에서 자랑하는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만함을 허탄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 4:16) 이제도 너희가 오만함 가운데에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6. 둘째,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오만과 거짓된 경건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종교와 관련없이 인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사장과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에스라가 원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보다 백성들로부터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 셋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의 윗자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이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은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력은 폐단을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힘을 만들어 내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눅 14: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8. 넷째,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은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막 12: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9.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서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10.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도는 헛된 기도에 불과합니다.

(마 6: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1.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높임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